

2026년 9월 14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9월 FOMC를 둘러싼 시장의 수 싸움

이번 주 코스피는 1) 지난 금요일 8월 CPI 결과, 2) 9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3) BOJ 회의 이후 엔화 향방, 4) 유가 변화, 5) 외국인 수급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 초반부터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600~7,200pt).

시장은 17일 새벽에 예정된 9월 FOMC 대응에 주력할 예정. 일단 9월 이후 “유가 상승 지속 → 8월 고용 서프라이즈 → 8월 헤드라인 PPI 컨센 상회 → 8월 코어 CPI 컨센 상회” 등 일련의 긴축 재료에 노출되어왔던 만큼,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열고 가는 것이 적절. 이 보다는 실제 인상에 나선다면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 재가속을 차단하기 위한 일회성 선제적 인상에 그칠지, 추가 긴축 사이클의 시작이 될 지가 메인 관전 포인트. 관건은 1) 점도표상 2026년 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기존 3.8%에서 상향하면서 추가 인상 여지를 둔지, 2) 위시 의장이 이번 인상을 일회성 대응으로 규정할 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RA 유지윤
jiyun.yoo@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11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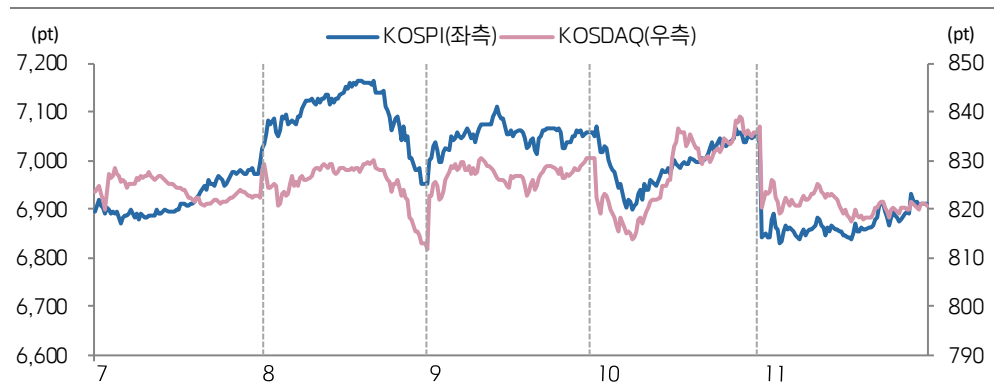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랠리와 자사주 매입 관련 수급, AI 인프라 투자 기대에 힘입어 코스피가 7,000선을 회복. 다만 주 후반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및 긴축 장기화 우려가 재부각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채 상승 마감 (KOSPI +3.33%, KOSDAQ +0.88%)

주 초반 코스피는 미국 반도체주 강세와 월러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따른 금리 부담 완화로 7,000선에 근접.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개인 순매도로 하락 전환. 주 중반에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이어졌음에도 오픈AI의 국내 AI 추론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과 GPT-6 아스트라 출시 기대가 부각되며 반도체·이차전지주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 기관과 자사주 매입 관련 기타법인의 순매수까지 더해지며 코스피는 7,000선을 회복. 다만 주 후반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에 근접하면서 인플레이션 및 긴축 장기화 우려가 재차 확대. 이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출회되며 코스피는 급락, 7,000선을 재차 하회.

대외적으로 미국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국내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 관련 수급이 지수 하단을 지지한 가운데, 오픈AI발 AI 인프라 투자 기대가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 반면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장기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및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를 자극하며 주 후반 외국인·기관 수급 이탈 요인으로 작용.

업종별로 건설(+11.03%), 기계/장비(+7.87%), 일반서비스(+6.68%), 전기/전자(+4.85%), 제조(+3.88%)가 상대적 강세를 보인 가운데 IT서비스(-3.84%), 음식료/담배(-3.31%), 제약(-3.09%), 오락/문화(-1.831%), 종이/목재(-1.83%)는 부진한 흐름. 한편, 외국인(-2조 1,701억원)은 일반서비스(-353억원), 금속(-258억원), 건설(-131억원), 섬유/의류(-45억원)순으로 순매도, 기관(+3조 5,900억 원)은 전기/전자(+39,192억원), 제조(+36,756억원), 기계/장비(+5,870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026년 9월 14일

KIWOOM WEEKLY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9월 14일	월	일본	산업생산 (MoM, 최종치)	7월	0.1%	1.9%
9월 15일	화	한국	수출 물가지수 (MoM)	8월	-	1.0%
			수입 물가지수 (MoM)	8월	-	-1.0%
		중국	산업생산 (YoY)	8월	4.8%	4.5%
			소매판매 (YoY)	8월	0.8%	0.6%
			고정자산투자 (YTD)	8월	-7.2%	-6.7%
			실업률	8월	5.2%	5.2%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9월	14.1	20.6
		EU	ZEW 서베이 예상	9월	-	31.4
9월 16일	수	미국	소매판매 (MoM)	8월	0.9%	-0.6%
			근원 소매판매 (MoM)	8월	0.5%	-0.3%
			NAHB 주택시장지수	9월	34	35
			수출 물가지수 (MoM)	8월	-	-1.3%
			수입 물가지수 (MoM)	8월	-	-0.4%
		실적	트립닷컴		-	-
9월 17일	목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9월	28.6	47.4
		EU	CPI (YoY, 최종치)	8월	-	2.9% (3.3%)
		실적	레나	3Q26	-	-
		회의	FOMC 회의 (오전 3시)	9월	3.75%	3.75%
		회의	BOE 통화정책회의	9월	-	-
9월 18일	금	한국	PPI (YoY)	8월	-	7.7%
		미국	산업생산 (MoM)	8월	0.3%	0.2%
		일본	CPI (YoY)	8월	2.0%	1.9%
		회의	BOJ 금융정책위원회	9월	1.25%	1.00%
		증시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	-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코스피는 1) 지난 금요일 8월 CPI 결과, 2) 9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3) BOJ 회의 이후 엔화 향방, 4) 유가 변화, 5) 외국인 수급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 초반부터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6,650~7,200pt).

11일(금) 미국 증시는 8월 CPI 이후 연준의 9월 인상 가능성에도, 오만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추진 소식으로 인한 유가 약세, 오라클(-1.7%) 호실적에 따른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델(+12.0%) 포함 AI 인프라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다우 +1.0%, S&P500 +0.9%, 나스닥 +1.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

8월 CPI는 헤드라인 +0.4%(MoM), +3.4%(YoY)로 컨센에 부합했지만, 코어는 +0.3%(MoM)으로 컨센(+0.2%)을 상회. 그 가운데, CPI 발표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0%대를 돌파하기도 했으며, FedWatch상 9월 인상 확률은 기존 60%에서 87%로 급등했음.

하지만 이날 미 10년물 금리가 5.0%에 안착하지 못하고, 미국 증시도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표면적으로는 유가가 하락한 것도 있겠으나, 시장이 9월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하는 동시에 추가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을 선반영했음을 보여주는 대목. 실제로 9월 들어 '동결 vs 인상'을 둘러싼 컨센서스가 빈번하게 바뀌면서 연준 정책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던 상황. 따라서, 9월 인상을 하더라도 추가 긴축 필요성이 낮아진다면, 연준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베팅이 나왔던 것으로 판단.

이제 시장은 17일 새벽에 예정된 9월 FOMC 대응에 주력할 예정. 일단 9월 이후 "유가 상승 지속 → 8월 고용 서프라이즈 → 8월 헤드라인 PPI 컨센 상회 → 8월 코어 CPI 컨센 상회" 등 일련의 긴축 재료에 노출되어왔던 만큼,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임. 현시점에서는 실제 인상에 나선다면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 재가속을 차단하기 위한 일회성 선제적 인상에 그칠지, 추가 긴축 사이클의 시작이 될 지가 중요해진 상황.

관련 포인트는 1) 점도표상 2026년 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기존 3.8%에서 상향하면서 추가 인상 여지를 두는지, 2) 위시 의장이 이번 인상을 일회성 대응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지가 해당. 동시에 FOMC 이후 미 10년물 금리의 향방도 간과할 수 없는 변수. 지난 금요일에 장중 돌파했던 5.0% 레벨에 안착하는 것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방 압력이 발생한다면, 증시 전반에 걸친 멀티플 부담을 높일 수 있기 때문.

9월 FOMC 다음날인 18일에 예정된 9월 BOJ 정책 회의도 주시해야 하며, 이미 시장에서는 9월 BOJ 금리 인상이 유력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 다만, BOJ 총재가 추가 긴축 의지를 강하게 표명할 경우, 엔화 강세 및 일본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BOJ 회의의 증시 민감도는 이전 회의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 7,000pt 부근에서의 지지력과 외국인 순매수 재개 및 반도체 주도력 유지 여부가 중요할 전망이다. 지난 주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3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7,000pt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주 후반 매크로 불확실성이 외국인 순매도를 초래하면서 다시 6,900pt대로 내려왔기에, 7,000pt가 지지선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26년 9월 14일

KIWOOM WEEKLY

따라서, 향후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는 수급 주체는 외국인으로 9월 FOMC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순매수의 재개 여부가 관건. 주 중 미 10년물 금리가 5% 레벨 이하에서 안정되는 등 매크로 불확실성이 완화될 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됨에 따라 증시 회복 궤도를 유지시켜줄 것으로 판단.

더 나아가,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근 AI 수요와 메모리 업황 전망이 훼손되지 않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전약후강 패턴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 이는 증시 조정 시 매수 수요 및 지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

물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오픈 AI,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의 모델 개발 속도 조절 논의가 국내외 AI, 반도체주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하지만 현재 논의는 AI 개발 중단보다 개발 속도와 안전성 검증을 조절하자는 성격이 강하기에, 이를 AI 투자 사이클 둔화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핵심은 이 같은 논의가 하이퍼스테일러 업체의 CAPEX 가이드스 하향, 메모리 수요 부진으로 연결될 지이며, 이는 10월 말 3분기 실적시즌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현시점부터 AI주 비중 축소에 나서는 전략의 실효성은 낮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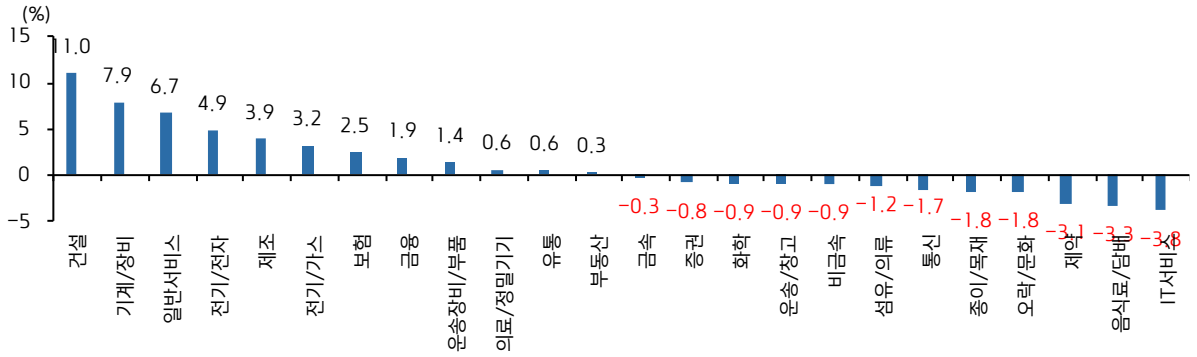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8월 CPI 여진, AI 속도조절 논란 속 9월 FOMC를 치르는 과정에서 단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겠지만, 현금 비중 확대보다 주식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우선순위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6,909.91	-1.8	3.3	8.9	64.0
대형주	7,551.65	-1.9	3.5	9.6	72.5
중형주	4,153.56	0.0	2.4	2.3	11.6
소형주	2,412.57	-0.2	0.4	0.4	-4.2
코스피 200	1,090.22	-2.0	3.7	10.4	79.9
코스닥	820.64	-2.0	0.9	-4.3	-11.3
대형주	2,010.28	-3.2	0.5	-5.2	-10.7
중형주	846.12	-0.5	1.2	-4.0	-6.0
소형주	2,360.27	-0.2	1.5	-1.4	-8.3
코스닥 150	1,399.14	-3.0	0.4	-5.8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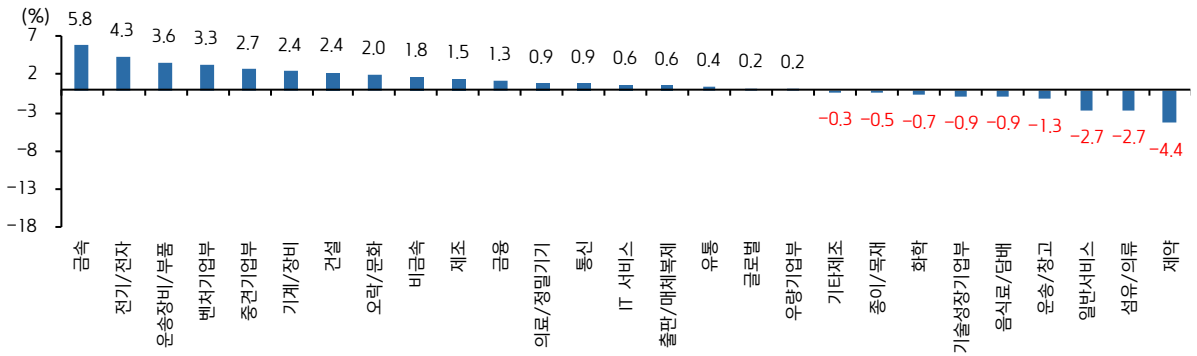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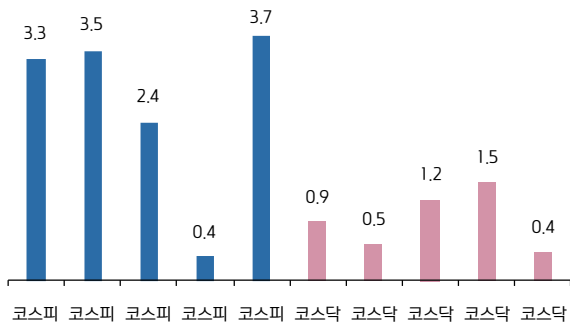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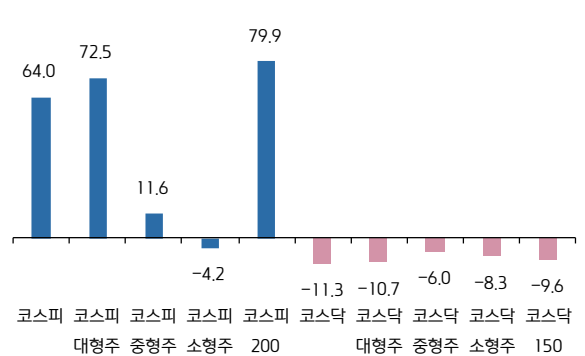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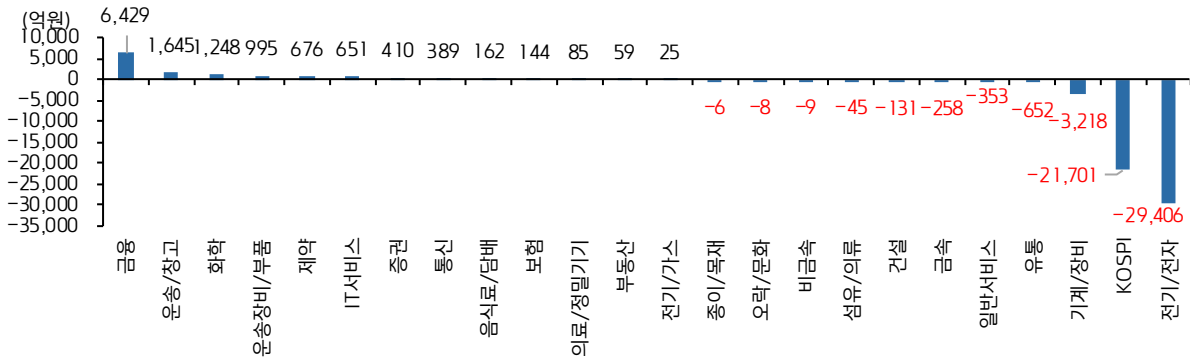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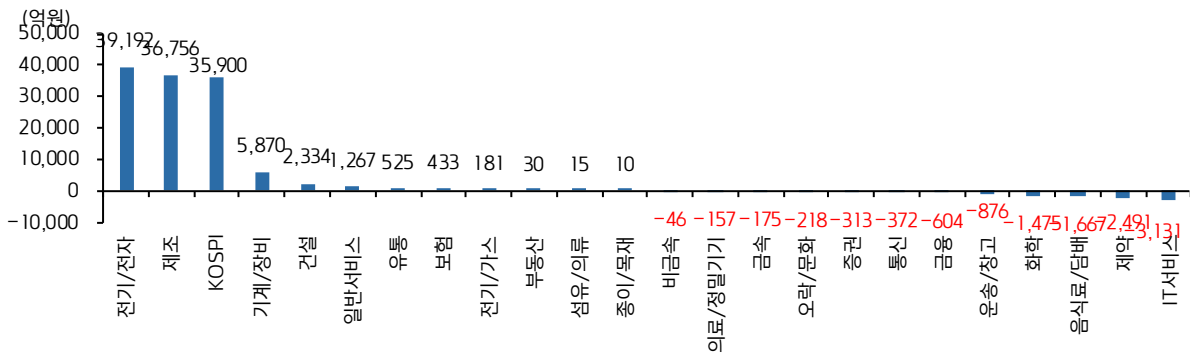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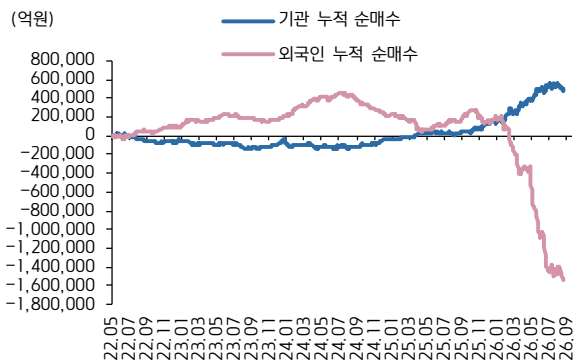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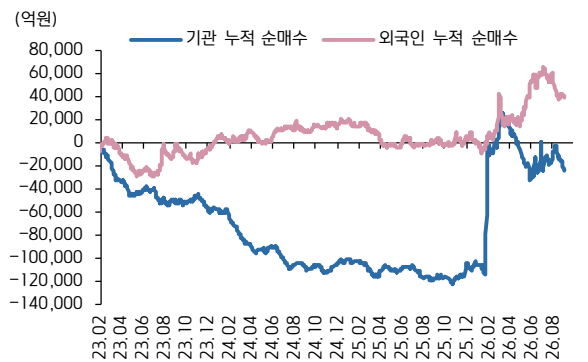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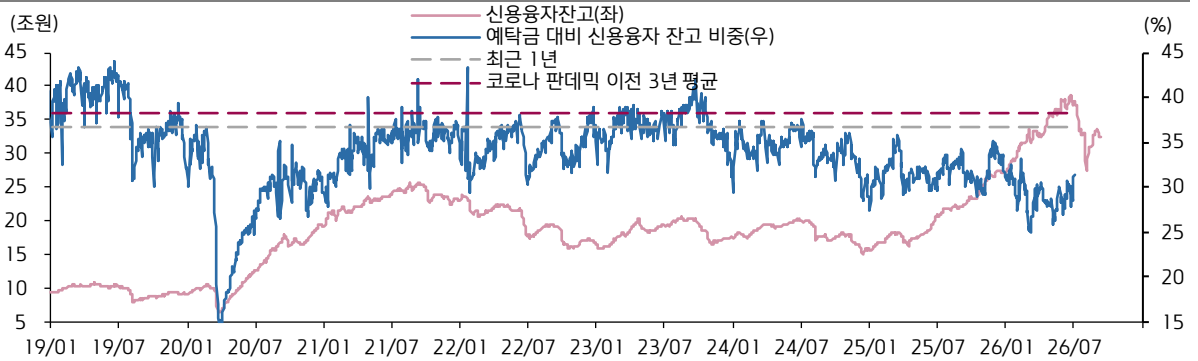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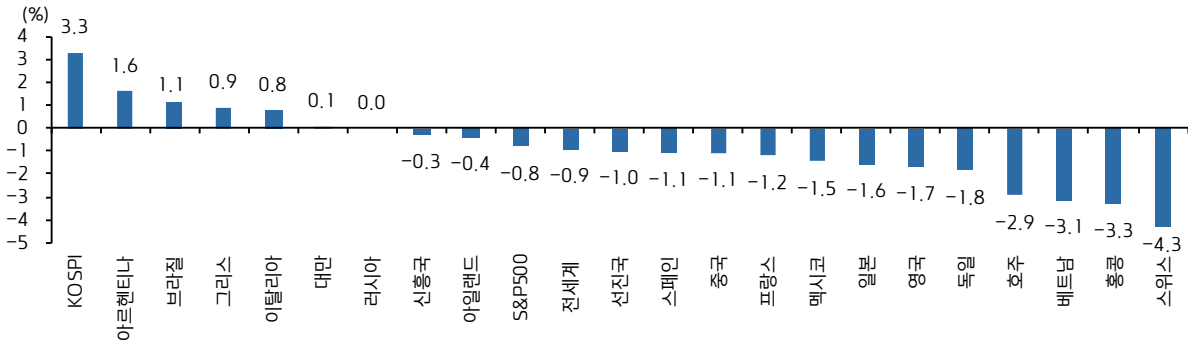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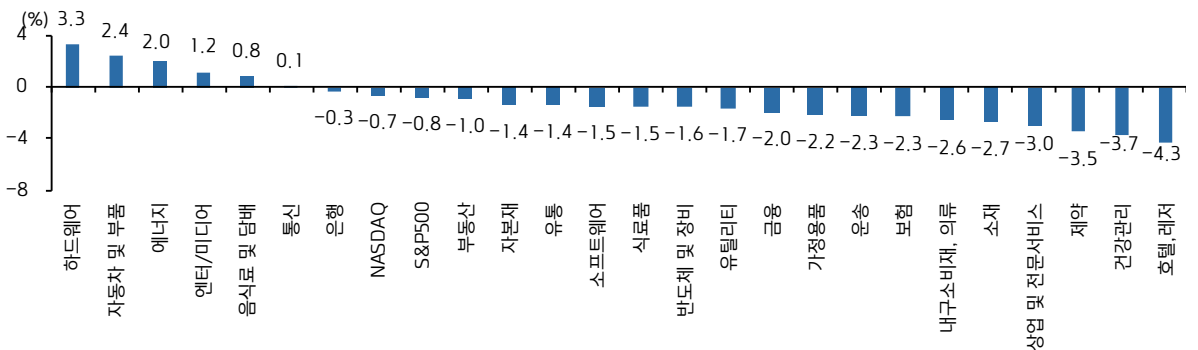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14일

KIWOOM WEEKLY